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오바다서-

에돔의 죄

(오바다 1장 1 - 9절)

‘오바다’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구약 성경에 열두 명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오바다 선지서를 기록했는지, 그리고 이 책이 언제 씌어졌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의 내용으로 보아 주전 850년경, 혹은 주전 312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성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기도가 없습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1. 에돔의 특징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별명으로 에돔의 죄는 에서의 후예들의 죄를 말합니다. 에돔은 에서가 살던 땅으로 다른 말로 세일이라고도 합니다. 에돔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려 지는데 유다의 동쪽과 남쪽의 국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개간에 적당한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중요한 이유는 상인들이 이 곳을 통과해야만 시리아와 애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애굽을 연결하는 상업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은 높은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군사의 요충지대가 됩니다.

에돔 백성의 특징은 다음의 여덟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① 호전적입니다(창 27:40). 에돔 백성들은 전쟁을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 ②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대하 25:14-20).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따라갔습니다.
- ③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좋아했습니다(렘 27:9).
- ④ 교만한 사람들입니다(렘 49:16). 남에게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대인 교만한 에돔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⑤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 원한을 품고 복수심에 불타있었습니다(겔 25:12).
- ⑥ 다른 사람들의 진로를 방해한 사람들입니다(민 20:18).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에돔 백성들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 ⑦ 공격적입니다. 에돔 백성들은 형제국인 유다를 공격한 침략자였습니다(대하 20:10).
- ⑧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에돔 백성들은 이 일을 매우 기뻐했습니다(시 137:7-8).

2. 에돔의 교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3절)

오바다 선지자는 에돔 백성의 이 모든 특징을 한 마디로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먼저 자신을 속입니다. 교만은 피조물인 인간이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4절).

냉평리지와 같이 위태로운 곳에 집을 짓고 바위 끝에 앉아 있기를 즐기는 독수리는 교만한 새입니다. 에돔은 마치 독수리처럼 스스로 방어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교만한 백성들입니다.

현대인들은 교만이 적인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원죄는 ‘교만 죄’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큰 죄로 지적하며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국가가 멸망하는 것도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 극치에 이를 때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그러했고 러시아가 그러했습니다. 교만의 뿌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에돔이 교만했던 이유는 지리적 조건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 내리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4절).

에돔은 지리적으로 자기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돔을 끌어내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 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5절).

도둑을 맞아도 집에 남은 것이 있는 법이고 포도를 수확해도 나무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에돔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에돔이 교만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동맹국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 이로다”(7절).

에돔은 자기들을 돕는 동맹국이 많으므로 하나님 없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인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은 에돔이 침략을 받을 때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형제인 이스라엘의 도움을 거절했던 에돔은 동맹국으로부터 도움을 거절당했습니다.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8절).

에돔은 또한 자기 지혜로 인해 교만했습니다. 에돔은 옛적부터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욥의 친구 가운데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엘리바스가 에돔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데만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삶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에돔은 웅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지혜가 뛰어나고 지각이 있는 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멸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성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기도가 없습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드만아 네 용수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9절).

성도는 악에서 돌이키어 하나님을 섬길 때 에돔과 같은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돔과 같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열심히 기도하고 겸손하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힘입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8대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누가 주의 택하신바 되었는지 보이시옵소서

오늘 찬양예배 후에

지난 11일 주일 찬양예배 후 갖은 임시 제직회에서 제8대 장로후보를 공천하는 투표를 통해 후보 20명을 공천한 우리교회는 지난 1주일 동안 후보들을 위하여 담전 3:1-7에 합당한 분을 투표할 수 있도록 기도도 준비하여왔고 공

표된 일정에 따라 오늘 찬양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통해 8대 장로를 선출하게 된다. 오늘 공동의회에 본 교회 세계교인은 모두가 참여하여 기도도 선출하도록 한다.

2003 홍해작전 주력부대 발표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온 2003 홍해작전을 승전으로 이끌 주력부대가 확정되었다.

날짜별로 정해진 주력부대는 6일부터 매일 새벽을 열

며 홍해작전의 중심에서 기도도 진군하게 된다. 모든 성도들이 홍해작전을 통해 국가와 민족 가정과 개인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 받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

요일	금	토	주일	월	화	수	목
일	6	7	8	9	10	11	12
주력부대	개전예배전교구	1,2교구	3,4교구	5,6,7,8 교구	9,10,11,12교구	13,14 교구	1,2 교구
일	13	14	15	16	17	18	19
주력부대	3,4 교구	5,6,7,8 교구	9,10,11,12교구	13,14 교구	1,2교구	3,4 교구	5,6,7,8 교구
일	20	21	22	23	24	25	29(주일)
주력부대	9,10,11,12교구	13,14 교구	1,2 교구	3,4 교구	5,6,7,8 교구	전교구	승전감사(찬양예배시)

제3기 캄보디아단기선교

김운호목사(캄보디아 단기선교단 지도)

서울교회 해외단기선교단이 올 여름 단기선교하게 될 나라는 캄보디아이다.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는 임학수선교사로 프놈펜대학 대학생교회를 섬기고 있다. 프놈펜대학은 캄보디아에 하나밖에 없는 국립종합대학으로 미래의 캄보디아를 이끌게 될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대학이다. 그런 면에서 프놈펜대학 대학생교회의 역할은 지대하다. 기독교인으로서 캄보디아의 미래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미래 캄보디아의 복음사역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임학수 선교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2001년 9월 프놈펜대학 대학생교회를 개척하였다. 지금 50여명의 학생들이 매주 목요일(성경공부 기초반), 금요일(성경공부 리더반), 주일예배 등 3차례 모여 성경공부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프놈펜대학은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고 있는데, 특히 대학생교회의 학생들은 수재들이 많아 모두 국비장학생들이다. 현재 캄보디아의 교회지도자들의 지적 수준은 평균 중졸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개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프놈펜 대학생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미래의 우수한 교회지도자를 양성하고 나아가 신학교 교수 자원으로 양성하려는 비전을 임학수 선교사는 가지고 있다.

지금 프놈펜 대학생교회 학생들은 제자 훈련의 한 과정으로 성경쓰기를 시작해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

음까지 썼다. 이들 중 주님을 위해 목회자로 헌신하기로 작정한 학생이 3명이라고 한다.

앞으로 대학생교회를 더욱 발전시켜 지방에서 올라 온 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학사, 도서관, 컴퓨터실 등을 구비한 종합 센터로 발전시킬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서울교회는 프놈펜대학 대학생교회 이외에 프놈펜 교외의 3개 현지교회를 선정하여 전도집회, 노방전도, 이미용 선교, 의료선교, 마을소독 등으로 선교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우리교회는 21명이 단기선교를 신청하여 열심히 훈련받고 있다. 지난 금요일(23일)은 벨엘하우스에서 뜨겁게 철야기도를 하고 왔다. 서울교회 단기선교단은 찬양 사역, 미용사역, 그리고 의료사역 등으로 선교에 동참하실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 성도들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



▶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전경

가정의 달 특별 신앙강좌

26일(월) 오후 7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연합으로 갖는 가정의 달 특별 신앙강좌가 내일(26일) 월 오후 7시 30분에 '천국과 천재의 비밀'이란 주제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강사로는 우리교회 박성수 장로가 서게 된다. 박성수 장로는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수, 전주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명지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22일 예배당 소독 실시

-식당 외의 곳에는 음식을 반입 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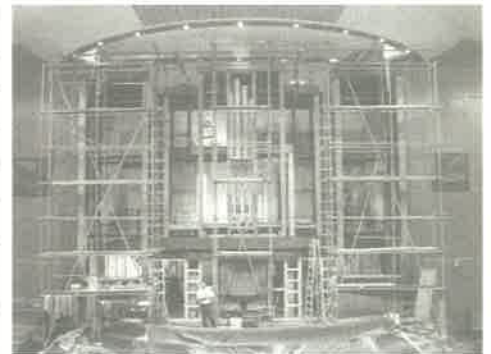
우리교회는 예년보다 빨리 찾아 온 이른 더위로 파리와 모기 등 해충이 다른 해보다 빨리 나타나기 시작할 것에 대비해, 지난 22일(목)에 전문 업체를 통해 본 교회 건물 전체, 예배실과 각 교육실을 연막 소독제와 액체 소독제, 살충제 등을 이용하여 소독하여 성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식당 외의 곳에 음식물 반입은 (절대)금한다. 여러분의 협력을 바란다.

오르간 첫 소리 현음

5월28일 수요일 2부 예배 후

현재 본당에서 진행중인 파이프 오르간 설치 작업이 성도들의 기도 속에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다음 주 수요일이 되는 5월 28일 수요일 2부 예배 후인 8시 15분에 본당에서 파이프 오르간의 첫소리를 시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며 남은 일정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금주의 성구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 71:17-18)

Since my youth, O God, you have taught me, and to this day I declare your marvelous deeds. Even when I am old and gray, do not forsake me, O God, till I declare your power to the next generation, your might to all who are to come. (Psalm 71:17-18)

나의 흥해를 육지로 변화하게.....



김병우 장로(2003 흥해러전 참모장)

애굽을 떠나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진군하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로놓인 홍해는, 모두를 송두리째 집어삼킬 듯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위로 내밀었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평에 쌓인 모든 무리가 육지위로 흥해를 건넜던 그때의 대역사가 오늘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믿고 바라는, 말씀과 기도의 흥해 작전이 개전을 목전에 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서울교회 군병들은 전열을 다듬고 개전의 북소리가 울릴 6월 6일 새벽 5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흥해 작전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찾는 믿음으로 우리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마다 체험하는 은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흥해 작전은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없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국가의 흥해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영원한 전리가 되기도 길의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진군하는, 순종의 백성들에게 권능의 손길이 임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결단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주신 한없는 은총에 감사하며, 졸지 않는 파수꾼으로, 기쁨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기도함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지 못한 기도제목들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어, 체험신앙의 산 경향이 되기를 바라며, 장성한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사, 낙오되는 자 한 사람도 없이 승전가를 높이 부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치기 위하여 허락하신 새 성전에 걸 맞는 청지기로서 이번 흥해 작전을 통하여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 살고, 중생하는 체질의 용광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또한 나 자신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새벽을 깨우는 제단 앞에 다 함께 달려 나갑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차 사역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가정 안방에서부터 다락방 그리고 교회까지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닐까요?

수지다락방의 특징은 말씀시간에 있습니다. 모두들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읽고 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날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읽기 검사 시간을 통해 처음에는 말씀을 읽지 않고는 부끄러워 갈수가 없더니 이제는 말씀 읽는 생활이 내 삶 속에 자리 잡아 세달 동안 3독하고도 삼백 장을 읽는 자신의 변화에 새삼 놀라기도 합니다. 읽을 때마다 풀 송이 보다 달고 오묘하여 읽을 때 마다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기쁨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수지 다락방 식구들은 말씀 속에 파묻혀 사는 은혜 충만한 식구들입니다. 예배 인도하시는 김광신 장로님의 빈틈없는 준비로 다락방의 말씀식탁은 날마다 만찬이며 때마다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 열기가 모아져 우리 온 교구에 퍼지고 온 교회에 퍼져 말씀운동이 뜨겁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맺어지는 다락방이지만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다락방입니다. 모두들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 더욱 모범이 되어 수지 부부 다락방이 더 큰 부흥의 불길어 일어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수지 부부 다락방

김정호집사(12교구)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최첨단 가전제품, 대형아파트, 명품 의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행복은 아주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가며 사는 것이 아닐까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여기 행복한 가정들이 모여 사는 수지 부부 다락방을 같이 산책하려 합니다.

수지 다락방은 일곱 가정이 목요일 저녁마다 설레임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말씀 속에서 서로의 가슴을 열고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과 이해 속에서 날마다 부흥하는 다락방입니다. 부부중심으로 자녀교육부터 부모님을 섬기는 간증까지 서로의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 시간으로 수지 다락방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열기가 우리 가정의 안방까지 흘러 들어와 행복의 습관까지도 닦아 버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며 가정을 얻은 자가 천하를 얻은 것이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편지 왔어요

쿠데타와 말라리아의 위험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문명숙 선교사(중앙아프리카)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 3월 15일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고 새 권력자는 전대통령을 밀어내기 위해 북쪽의 회교국 "차드"를 등에 업어 차드의 회교 세력을 끌어들이었습니다.

이 나라 정국은 아직 혼란하여 앞날이 예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쿠데타로 방기(중앙아프리카 수도)는 많은 노력을 겪었습니다. 차드의 회교용병들이 15일 밤부터 굶주린 주민들과 함께 노력질을 시작했는데, 특히 기독교단체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 방기신학교는 무장 군인들에게 새벽에 자동차, 전자제품, 돈들을 약탈당했습니다.

저도 새벽에 바깥에서 들리는 사나운 차드 아랍어를 들었을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들이 집집마다 수색하며, 소리 지르고 다니다가 물러났을 때, 신학교 차 4대와 벌써 많은 집에서 노력질을 한 것을 알았습니다. 학생들과 동료들이 와서, 백인선교사(여기서는 동양인도 백인이라 부릅니다)를 내놓으라고 저를 찾았더니, 집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주의해주었습니다.

차드 회교 용병들이 그들은 저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정확히 찾아왔는데, 제가 12월에 바로 옆 집으로 이사한 것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7번을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무더위에 창문도 못 열고, 그들이 제 집문을 두드리는 경우 열지 않으면 총을 쏘니까 대비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저의 집을 대어섯 번을 돌면서 모든 이웃집을 다 두들겼는데, 저의 집만 두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주에 저는 거의 꼼짝 못하는 상태였지만 저에게 아프리카 동료들이 사랑과 감사와 위로를 전하여 받은 기쁨도 있었습니다. 환란 가운데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로 지냈습니다. 그날 노력질을 가장 심하게 당한 학장부부로 시작해서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힘이 있었던 것도, 그 주에 매일 밤마다 특별기도회를 갖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다시 강의도 시작하고 부활절 찬양제를 준비했는데, 찬양제는 제가 말라리아로 키네 링거를 맞는 동안에 치러졌습니다. 이제까지 겪지 못한 심한 말라리아로 고전하다가, 회복기에서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중부아프리카의 회교화를 막기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기에서 문선교사 드립니다.

찬양이 흘러넘치는 가정

노재균 (대학부)

찬양이 흘러넘치는 가정보다 은혜로운 가정이 있을까? 이제 우리 가족의 절기가 된 가족 찬양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은 찬양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찬양을 할 곡을 선곡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곡은 할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찬송가 중에서 곡을 선정하려 했는데 작년에 했던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다시 떠올랐다. 이 찬송가는 특별히 병상에 누워계신 우리 외할머니가 좋아하시고 즐겨 부르시던 찬송이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찬송가를 부르기로 결정하고 연습을 시작했다. 식구가 4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파트를 나눠서 하기는 힘들었다.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찬양을 드리자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감사했다. 비록 많은 연습을 하지 못했지만 그

연습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찬양 대회가 있던 날, 나는 찬양 연습을 하기 전에 아버지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서로 감정이 상했고 정말 이런 상태로는 찬양을 부르기가 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찬양을 연습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맞추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다시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찬양 대회가 열리고 우리 가족의 차례가 되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긴장했던 나머지 첫 번째 찬양을 부를 때에는 아멘을 하는 것을 잊기까지 했다. 하지만 두 번째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다. 신실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는 생각으로 찬양을 했다.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문득 옆을 보았을 때 조금은 긴장된 표정이지만 환하게 웃으면서 찬양을 하시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를 볼 수 있었다. 그렇다. 나의 찬양은 나 혼자만의 찬양이 아니고 우리 가족

의 찬양이었고 성령 안에 하나 된 우리의 찬양이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족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계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 가족으로 하여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계속 찬양을 이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올해 표어를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 14:17) 로, 행동지침 중 하나를 생명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로 정하여 실천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원 낭비로 인해 자연을 망치고 생명을 죽이고 있다.

다음주일은 총회 환경주일이다. 이번 주간 동안 환경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적당히 먹을 만큼 음식물을 준비하여 정해진 곳에서 섭취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 각종 세제는 정량을 쓰고 있습니까?
- 지금 많은 물을 흘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 필요 없는 전등은 끄고 있습니까?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7일(화) 한남 CBMC 춘계 전도초청 만찬회에서 설교한다. 29일(목)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여한다.
- 승진: 최정환 성도(2교구) 국정원 이사관으로 승진
- 금주의 식사: 우유명 집사 · 김윤자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살롬 경로대학 아오학습 - 강화도를 다녀와서



최양홍 권사(13교구)

아카시아 꽃향기처럼 싱그러운 오월 둘째 주, 살롬 경로대학의 강화도 견학 및 야외 예배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청명하고 고운 날, 복되고 좋은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버스에 올랐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살롬 경로대학의 원생들을 위한 여러 손길이 바쁜 가운데, 심김의 아름다움이 배어있음을 순간순간 느끼며 감사한 마음들이다. 한 해 한 해 다르게 변모되는 원생들과는 달리,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고 들떠있는 마음이 교차되며 이야깃거리로 버스 안은 즐겁기만 하다.

이용식 목사님의 기도로 출발한 버스는 복잡한 서늘 거리를 빠져나가 행주산성과 강화대교를 지나 목적지인 강화도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려 제일 먼저 찾은 곳은 강화도 역사관이였다. 가이드를 맡으신 이만열 전도사님을 모신 것이 우선 행운이었다. 고대 단군시대의 유적부터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역사 유적지와 유물을 둘러보는 현장학습은 이전도사님의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 역사의 흐름을 나름대로 이해해 보는 즐거움이 있었다.

고려시대 궁궐터였던 유적지를 돌아 강화도 읍내의 뷔페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은 후, 조선시대 철종이 왕위에 오

르기 전에 거거했다는 용흥궁을 돌아보고 강화도 성공회 성당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식 건축물로 아름답고 단아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매년 강화도에 있는 기독교회를 위한 부흥회가 열리는 곳이라고 했다.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복음화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다는 그 곳은, 외적으로부터의 잦은 침입 위기를 당할 때마다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가늘 이어져 내려온 곳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음을 되새기며 어려운 상황이 연속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뜨거운 기도로써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민족복음화에 우리의 몫을 찾고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함을 느꼈다.

강화지석묘(고인돌) 견학을 끝으로 알찬 일정을 마치며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재충전을 한 기회였다.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롬 경로대학 원생들을 위해 봉사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왕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지면을 통해 마음을 모아 감사사를 드린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2. 2003 홍해작전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오늘 실시될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